

주간 전남 농업

VOL. 248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8월 넷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오래 저장하는 고품질 사과, “CA저장고가 효자네”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도 새로운 소득작목 패션프루트 본격 수확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나주시, 명품 다도마늘 육성 박차
해외 농업정보 인도네시아, 점차 커져가는 채식시장



전남농기원, 전남도 새로운 소득작목 패션프루트 본격 수확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6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0 ~ 23도, 최고기온 : 28 ~ 30도)와 비슷함
- ▶ 강수량은 평년(6 ~ 14mm)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7

- ▶ 배추, 무
- ▶ 양배추, 당근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수출입 동향 16

- ▶ 고흥군, 농수산물 690만 달러(83억 원) 수출 협약체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8

- ▶ 소(牛)가 잘 먹는 청보리 ‘유진’ 보급 시작
- ▶ 오래 저장하는 고품질 사과, “CA저장고가 효자네”
- ▶ 젖소의 더위 스트레스 확인과 대응 방법은?
- ▶ 수확 앞둔 사과, 탄저병 발생... 제때 방제 필요
- ▶ 벼 기공 열고 달아 가뭄 이기는 원리 구명
- ▶ “딸기 묘, 더위 한풀 꺾인 뒤 본밭에 심으세요”
- ▶ 농촌진흥청, 잦은 비에 벼가 잠기면?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8

- ▶ 전남도, 추석 앞두고 인기 축산물 안전성 강화
- ▶ 전남도-광주상의, 추석 농식품 구매 공동 캠페인
- ▶ 전남도-농협중앙회, 농업농촌 발전 공동 노력키로
-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을 위한 돼지농장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 실시
- ▶ 전남농기원, ‘빅데이터 전문가 1급’ 자격증 16명 취득 쾌거
- ▶ 전남도 새로운 소득작목 패션프루트 본격 수확
- ▶ “풋굴의 상큼함 그대로 피부에 바르세요”
- ▶ ‘농업기술명인’브랜드 가치 활용해 오픈마켓 진출 모색
- ▶ 햇배 ‘한아름’엔 달콤한 과즙이 ‘한가득’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7

- ▶ 나주시, 명품 다도마늘 육성 박차
- ▶ 나주시, ‘과수화상병’예방, 농가 실천 이렇게 하세요!
- ▶ 담양군, 청년농업인과 함께 담양의 미래농업을 꿈꾸다!
- ▶ 곡성군, 추석 대비 서울 코엑스 명절선물전에서 곡성 멜론 홍보
- ▶ 곡성군,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으로 전국적 브랜드화 꿈꾸는 곡성멜론
- ▶ 보성군, 개학 맞은 아이들 싱싱농원에서 딸기잼 만들기체험
- ▶ 화순군, 안정적 농촌 정착위한 귀농 농업창업 지원
- ▶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소규모 창업농 육성 효과‘톡톡’
- ▶ 무안군, 양파 재배 기계화로 경쟁력 강화 앞장
- ▶ 무안군, 과수화상병 방지 교육 실시
- ▶ 함평군,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 운영
- ▶ 영광군, 올해 조생종 벼 첫 수확
-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노지 해변포도 8월 20일경 출하

8. 해외 농업정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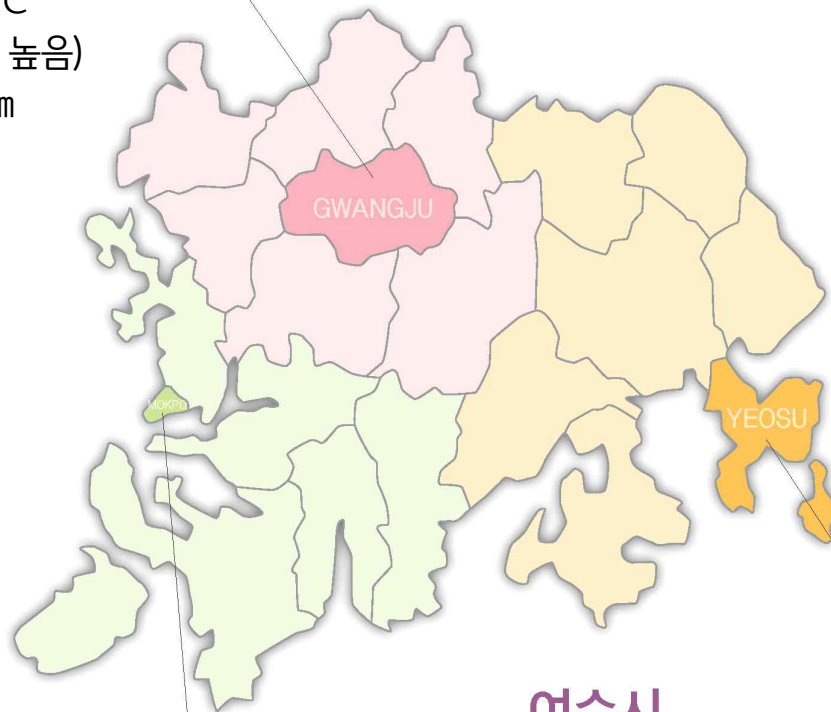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점차 커져가는 채식시장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26.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수출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52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5.7℃
(평년대비 0.8℃ 높음)
- 최고기온 : 29.6℃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21.9℃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8.7mm



목포시

- 평균기온 : 25.6℃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8.6℃
(평년대비 0.4℃ 낮음)
- 최저기온 : 22.6℃
(평년대비 0.5℃ 높음)
- 강 수 량 : 7.8mm

여수시

- 평균기온 : 25.6℃
(평년대비 0.5℃ 높음)
- 최고기온 : 28.0℃
(평년대비 3.5℃ 높음)
- 최저기온 : 23.1℃
(평년대비 0.6℃ 높음)
- 강 수 량 : 8.4mm

8월 배추·무 출하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가을배추·무 재배의향면적

사전 면적조절 매뉴얼상 **안정** 단계



월동무 재배의향면적

⚠ 면적 과잉으로 가격 **하락** 우려



8월 기상여건 좋을 경우 차기작형 재배면적 감축 노력 필요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8



배추

생산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 9월 하순부터 주 출하되는 준고랭지2기작 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대비 14% 내외 감소하겠으며, 정식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고랭지배추 작황이 생육기(6~7월) 적절한 온도(15~20℃)로 양호해져 전원(7월초) 전망치(0.8% 증가)보다 단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양호해진 작황으로 전년과 비슷하겠으나, 평년보다는 2% 많은 40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출하전망 : 8~9월 출하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8월 노지봄배추 저장 출하량은 전년대비 1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고랭지배추 출하면적은 이른 추석(9월 13일)에 따른 조기 정식으로 출하가 앞당겨져 면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5%), 단수는 폭염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전년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8월 출하량은 노지봄 저장 및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평년 대비 각각 8%, 6%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8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5,080원) 및 평년(11,920원)보다 낮은 7,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무

● 출하전망 : 8월 출하량 전년보다 4% 증가 전망

- 8월 출하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9%,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지봄무의 막바지 저장 출하물량이 많은데다, 고랭지무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9월 출하량도 고랭지무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8%, 1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금년 추석 성수기(8.29~9.12 추석 전 2주간) 무 출하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8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높았던 전년(24,430원)보다 낮고, 평년(14,880원)보다도 낮은 7,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그러나 8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고온, 집중호우 등)에 따라 출하량 증가폭이 예상보다 축소될 경우, 전망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양배추

● 생산전망 : 8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2019년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2% 증가한 1,864ha로 추정된다.
- 단수는 생육 및 출하기 기상여건이 좋아 폭염 등으로 작황이 크게 나빴던 전년보다 19%, 평년 대비 5% 증가한 4,376kg/10a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4%, 17% 증가한 8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년대비 하락 전망

- 8월 도매가격은 고랭지양배추 출하량이 많아 전년(13,340원)과 평년(7,090원)보다 낮은 3,000원/8kg 내외로 예상되며, 9월에도 가격 약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당근

● 생산전망 : 고랭지당근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고랭지당근은 5월 고온·가뭄과 큰 일교차로 생육 초기에 일부 발아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고랭지 당근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0%, 13% 많은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당근 첫 출하는 8월 하순에 본격적인 출하는 9월 상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

- 8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9,780원)과 평년(37,640원)보다 낮은 25,000원/20kg내외로 전망된다.
- 9월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66,400원)보다 낮고, 평년(44,550원)보다도 하락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08. 26.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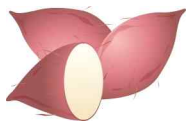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6,025	39,467	↑	24.1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1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77,800	154,933	↑	27.9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kg	27,400	28,600	↓	3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680	40,600	30,223	↓	9.3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0kg	21,000	20,800	↓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280	47,850	31,143	↓	32.6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kg	9,400	8,200	↓	6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60	24,000	14,893	↓	36.9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8kg	4,300	4,400	↓	6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80	14,000	8,537	↓	49.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0개	57,000	62,000	↓	1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067	63,583	67,583	↓	15.7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0개	16,800	16,600	↓	3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760	27,400	23,133	↓	27.4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30kg	-	505,0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0,600	600,000	365,133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20,000	120,000	↓ 25.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0kg	31,800	31,000	↓ 4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520	61,100	43,173	↓ 26.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5kg	24,000	20,800	↓ 4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380	41,150	27,790	↓ 13.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kg	20,800	21,800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840	21,700	20,780	↑ 0.1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kg	69,600	73,600	↑ 2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720	54,950	52,753	↑ 31.9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0kg	10,200	10,000	↓ 3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40	15,900	19,623	↓ 48.0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kg	1,720	1,880	↓ 3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92	2,735	2,157	↓ 20.3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개	16,000	17,600	↓ 3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080	25,000	18,360	↓ 12.9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5kg	13,800	13,000	↓ 2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600	18,350	16,543	↓ 16.6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kg	34,400	34,6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480	37,800	40,571	↓ 15.2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5kg	70,667	72,800	↑ 10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9,280	34,300	48,273	↑ 46.4

키위(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kg	40,400	41,400	↓ 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000	42,000	43,080	↓ 6.2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0g	8,088	7,93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86	8,084	7,650	↑ 5.7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kg	5,295	5,305	↓ 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75	5,379	5,356	↓ 1.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30kg	501,600	502,600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600	499,200	525,933	↓ 4.6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kg	14,400	13,600	↓ 1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920	16,950	14,863	↓ 3.1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2kg	8,400	7,200	↑ 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600	8,000	7,963	↑ 5.5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00g	1,909	1,888	↓ 1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23	2,229	2,201	↓ 13.3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30개	5,000	4,937	↓ 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87	5,089	5,704	↓ 12.3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26)	1주일전 (8/19)	전년대비	
1L	2,619	2,616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	2,603	2,555	↑	2.5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8. 26.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425	5,447	5,654	↓ 0.4	↓ 4.1
거세	6,840	6,675	6,887	↑ 2.5	↓ 0.7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034	3,101	3,049	↓ 2.2	↓ 0.5
수	3,928	3,900	4,025	↑ 0.7	↓ 2.4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98	3,184	3,64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4	↓ 12.1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12	429	23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0	↑ 76.1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92	371	43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7	↓ 10.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379	1,324	2,0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2	↓ 31.1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44	910	1,0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7	↓ 11.9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00	2,200	2,5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5	↓ 10.4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고흥군, 농수산물 690만 달러(83억 원) 수출 협약체결

- 유럽 190만 달러, 홍콩·말레이시아 500만 달러 협약 -

-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단장 송귀근 군수)은 지난 8월 8일과 11일 체코와 이탈리아에서 유자상품 19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4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달러, 16일에는 홍콩에서 400만 달러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10여 일 동안 총 690만 달러(83억 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고흥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하락 등 국내 농수산물의 내수 부진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농수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흥군에서 발 빠르게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것은 농수산물 가공업체와 생산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수출 참가업체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체코에서 크로스 카페(CROSS CAFE) 등 2개사와 80만 달러, 이탈리아에서 에세필 SRL(Essefil SRL)사 등 2개사와 11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케이엠티(KMT)사와 100만 달러, 홍콩에서 영 트레이드(Young Trade)를 비롯한 3개사와 400만 달러 등 총 690만 달러(83억 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다.

- 특히, 송 군수는 홍콩의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시우퐁 그룹의 ‘시우인 퐁’ 회장을 직접 만나 고향 농수산물 수입을 요청하였고, ‘시우인 퐁’ 회장은 금년 10월에 고향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하기로 하였다.
- 말레이시아 케이엠티(KMT)사의 이마테오 대표는 “품질 좋은 다양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고향군과 수출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고향 농수산물을 동남아시아와 인도시장에도 진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향군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은 고향의 8개 수출업체와 함께 8월 15일부터 4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였는데, 총 21개국에서 1,403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종 식품을 전시 판매하는 박람회로써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들에게는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출처 : 고향군

🐮 소(牛)가 잘 먹는 청보리 ‘유진’ 보급 시작

- 까락 없어 목 넘김 부드러워...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까락이 퇴화되어 부드러운 소가 잘 먹는 사료용 청보리 품종 ‘유진’을 보급한다.
- 청보리는 알곡은 물론, 잎과 줄기까지 먹을 수 있어 수입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대체 효과가 크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급되는 청보리는 ‘영양’, ‘우호’ 2품종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유진’ 품종을 통상실시하고 이달 중 종자를 공급한다.
- ‘유진’ 품종은 거친 일반망에 비해 까락이 퇴화한 부드러운 삼차망으로 소가 잘 먹는다.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도 많다.
- 초장은 99cm이며, 건물수량은 단위 면적당(ha) 12톤으로 기존에 육성한 삼차망 ‘유연’보다 5% 많다.
- 조단백질 함량은 10.6%이다. 소화가 되는 영양소 총량(TDN4))은 69.1%로 ‘유연’ 보리에 비해 높으며, 젖산 함량은 높고 초산과 낙산이 적어 사일리지 품질도 좋다.
- 종자 구입을 원하는 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전화(063-919-1615)해 문의하면 된다.

- 청보리 ‘유진’ 재배시 종자 파종량은 단위 면적당(ha) 220kg이 필요하며, 중북부 산간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점호 작물육종과장은 “삼차망 청보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급종이 없어 종자를 구하지 못한 농가가 많았다.”라며, “이번 ‘유진’의 보급으로 사료 재배 농가는 조사료 수량을 늘리고, 축산 농가는 영양가 높은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오래 저장하는 고품질 사과, “CA저장고가 효자네”

- 감모율 적고 최대 9개월 저장 가능...농가 95% 이상 '만족'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사과 CA저장고의 보급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
- CA저장은 온도, 습도, 공기 조성(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을 조절해 농산물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 사과 CA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2% 대로 낮춰 사과의 시늉을 막고 자동 환기로 저장고 내 이산화탄소와 에틸렌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 사과를 고품질 상태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 지난해 당진과 봉화에 이어 올해에는 사과 주산지인 장수와 청송에 CA저장고를 추가로 보급해 ‘후지’ 품종을 저장했다. 그 결과, 일반 저온 저장보다 상품성과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
- 봉화에서는 CA저장고에 7개월 간 저장한 사과 380상자를 올해 6월 출하했다. 출하 당시 감모율은 1.8%로 일반 저온에 저장(3.7%)한 것보다 적었다. 저장 기간도 9개월로 늘어 저온 저장(6개월)보다 길어졌으며, 소득도 10% 늘었다.
- 당진의 경우도 감모율은 3.2%로 저온 저장 때 7.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저온 저장일 때 4개월이던 저장 기간도 7개월로 늘어 농가의 9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저장고 내 사과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해 농가가 저장된 사과의 품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젖소의 더위 스트레스 확인과 대응 방법은?

- 가축더위지수 72 · 분당 호흡 80회 이상, 냉각 시스템 가동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젖소의 생산성 저하는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수준은 높일 수 있는 ‘더위 스트레스 측정 지표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 젖소(홀스타인종)는 27도(℃) 이상일 때 사료 먹는 양과 우유 생산량이 줄고 번식 성적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겪는 더위 스트레스는 가을까지 이어진다. 과산증(acidosis)등 대사성 질병이나 도태의 원인이 되므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 가축더위지수는 조건표를 활용해 계산할 수 있다. 젖소는 이 수치가 72 이상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한우리’(hanwoori.nias.go.kr)의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가축더위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젖소의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분당 평균 호흡이 70회 내외이면 우유 생산량과 번식률 모두 양호하게 나타난다.
- 호흡은 10초 동안 소의 복부 움직임 횟수를 세고 6을 곱해 1분 단위로 환산한다.
- 젖소 무리의 70% 이상이 분당 80회 이상으로 호흡하고 있다면 젖소들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시 냉각 시스템(송풍팬, 안개 분무 시설 등)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광석 낙농과장은 “여름철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을 3~5kg 정도 늘릴 수 있다.”라며, “고온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농가 실정에 맞는 젖소의 더위 스트레스 지표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수확 앞둔 사과, 탄저병 발생... 제때 방제 필요

- 비 오기 전 · 후 방제하고 병든 열매는 즉시 제거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덥고 습한 날씨로 사과 탄저병이 확산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 사과 탄저병은 일찍 성숙하는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물론, 최근에는 늦게 익는 만생종에서도 발생이 늘고 있다.
- 탄저병의 병원균은 25℃~28℃,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많이 확산한다. 빗물을 따라 다른 열매로 전염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 탄저병에 걸린 열매는 감염 초기에 검은색 작은 반점이 나타난다. 점차 감염 부위가 넓어지면서 표면이 움푹 파이고, 열매 안쪽이 갈색으로 변한다. 열매의 겉에는 주황색 또는 분홍색 분생포자를 형성하며 이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한다.
- 병 발생을 예방하려면 발생 전 병원균 밀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나무 윗부분에 발생하는 병든 과일을 따내 전염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사과 탄저병은 적용 약제를 뿌려야 하며 감염 과실은 발생 초기에 즉시 따내야 한다.”라며, “8월 중순부터는 중생종 사과 품종 수확기인 만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벼 기공 열고 닫아 가뭄 이기는 원리 구명

- 물 사용량 줄이고 가뭄저항성 높은 작물 개발 기반 기술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식물이 기공을 조절하며 가뭄을 견디는 원리 중 하나를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 식물은 가뭄, 고온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잎 뒷면의 기공을 여닫으며 수분 증발을 늘리거나 줄여 온도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 기공은 식물이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다. 입술모양의 공변세포 한 쌍으로 구성되며, 이 세포는 외부의 빛, 온도, 습도에 반응해 여닫음을 조절한다.
- 기공개폐조절 기작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벼 등 우리 작물에서는 시작 단계이다.
- 우선 벼 공변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이온채널 1종, 인산화효소 1종, 탈인산화효소 2종 등 4종의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실제 가뭄저항성 증진 여부를 조사했다.
- 확인 결과, 이온채널과 인산화효소 관련 유전자는 기공을 닫아 물 배출을 줄이고, 탈인산화효소 관련 유전자는 기공을 열어 물 배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여운수 생물소재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발과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 분야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가뭄저항성이 큰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딸기 묘, 더위 한풀 꺾인 뒤 본밭에 심으세요”

- 28도 이상일 땐 꽃눈 늦게 형성되고 시들음병 우려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딸기를 수경으로 재배(물가꾸기)할 때 묘를 본밭에 옮겨 심는(아주심기) 시기와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9월께 본밭에 묘를 심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한다. 출하가 빠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아주심기를 앞당기는 농가가 늘고 있다.
- 그러나 묘를 너무 빨리 옮겨 심으면 늦여름 고온(28℃ 이상) 상태에서 생육 장애가 발생하거나, 밤에도 기온이 24℃ 이상 오르는 열대야로 꽃눈 형성을 방해해 오히려 수확이 늦춰질 수 있다.
- 특히, 최근 면적이 늘고 있는 수경재배는 뿌리가 자라는 배지가 공중에 노출돼 있어 토양 재배보다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날씨 등을 고려해 아주심기 할 시기를 정해야 한다.
- 고온에서 뿌리 조직에 상처가 나면 식물의 양분과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근권부(뿌리 부분)인 배지의 화학성이 변해 배지 안의 영양원(무기이온)을 흡수하기 어렵다. 코이어(코코피트) 같은 유기 배지에서는 작은뿌리파리 유충이 번식하거나 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평균 최고 기온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9월 10일경까지 28℃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온 장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9월 10일 이후, 늦더위 현상이 지난 이후에 아주심기를 하는 것이 좋다.
- 이미 아주심기를 마친 농가라면 온실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고 덥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충해를 예방해야 한다. 온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광망이나 차광도포제, 기능성 피복재 등을 사용해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고, 유동팬과 환기팬을 통해 더운 공기를 외부로 내보낸다.
- 미세한 물 입자를 온실 내부에 뿌려 온도를 낮추는 안개 분무(포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히트 펌프를 이용해 물 온도를 낮춰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탄저병과 시들음병, 작은부리파리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 누리집에서 농약등록현황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참고해 방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강진 소장은 “딸기의 아주심기는 지역별로 그 해의 기상조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은 후에도 온실 내부가 덥거나 습해지지 않도록 시설 환경을 조절하고, 지나치게 일찍 심어 고온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잦은 비에 벼가 잠기면?

- 등숙기에 잠기면 도정률 · 완전미율 떨어져... 피해 예방법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잦아진 국지성 호우로 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물에 잠기는 침관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벼가 물에 잠기면 여우는 단계에 따라 피해 양상도 달라진다.
- 유숙기(이삭 팬 후 알곡이 차기 시작하는 초기)나 호숙기(이삭 팬 후 10일에서 20일경 까지로, 내용물이 젖물에서 풀모양으로 점성을 띠게 되는 단계)라면 등숙률(여물 비율), 종실중 감소로 수량이 줄고, 분상질립·싸라기가 늘어 품질이 떨어진다.
- 수량 감소는 호숙기보다 유숙기에 크다. 유숙기보다 조금 더 여문 상태인 호숙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 황숙기(이삭 팬후 30일쯤 과피에 엽록소가 소실되어 황색갈로 변하면서부터 45일 완숙기에 이르기 전 까지 단계) 후에는 수확 전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나타난다. 그 결과 분상질립 (쌀알에 흰 반점이 있는 쌀) 또는 싸라기가 늘어 도정률도 줄어든다.
- 싹이 1mm 이하로 수발아한 종자의 도정률은 8%까지 낮아진다. 1mm~3mm일 때는 13%, 3mm~1cm이면 24 %, 1cm~1.5cm이면 26% 도정률이 감소한다.

- 벼 침관수 예방의 기본은 하천 정비다. 재배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 **흙양금 세척:** 침관수 된 벼의 흙양금과 오물을 씻어내면 방치해 둔 벼보다 수량 감소가 적다. 씻어줄 경우, 유숙기에는 14~20%, 호숙기에는 9~14%, 황숙기에는 2~5%가 수량이 덜 줄었다.
- **물관리:** 침관수 된 벼는 뿌리의 활력이 저하상태에 있기 쉽다. 그러므로 퇴수 후 물을 말리지 말고 산소가 풍부한 맑은 물을 여러 번 갈아 넣어 새 뿌리의 발생을 돕도록 해야 한다.
- **농약 살포:** 침관수 지역은 벼 흰잎마름병의 발생우려가 크므로 물이 빠진 후 벼 흰잎마름병 방제 약제를 뿌려준다.
- **생장조절제:** 침관수 벼에 살균제인 다코닐수화제와 베노밀 수화제, 생장조정제인 에세폰액제를 이삭에 뿌려주면 등숙률을 높여 쌀 수량이 5~28% 늘어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추석 앞두고 인기 축산물 안전성 강화

-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특별수거검사...위생신선도 등 집중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육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전남에서 유통되는 소·돼지고기 집중 수거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 수거검사 대상 품목은 전남 22개 시군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20곳의 명절제수용,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소돼지고기 식육 및 포장육 등이다. 110건 이상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 중점 수거검사 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휘발성 염기질소 등 식육위생의 지표가 되는 항목이다. 세균수 및 대장균은 위생지표균으로서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위생수준을 나타낸다. 휘발성 염기질소는 식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육류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남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물 유통 및 판매 관련 영업소에서는 축산물 취급·보관과 관련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광주상의, 추석 농식품 구매 공동 캠페인

-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배부온오프라인 구매 활성화 유도 -

- 전라남도가 광주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추석 대비 전남 우수 농식품 구매 활성화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 전라남도과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9월 6일까지 광주상공회의소 1층에서 상공회의소 직원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 농수특산물을 전시, 판매한다. 또한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책자를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배포하고, 누리집을 통해 온오프라인 구매 활성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 이번 공동 캠페인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 농식품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이 전남 농식품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전라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순천 모링가차, 나주 영양쌀, 광양 매실액, 담양 한과와 죽순, 곡성 발아현미, 고흥 석류즙, 보성 녹차, 장흥 표고버섯, 영암 전통된장, 영광 굴비, 완도 건어물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 전라남도과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캠페인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공회의소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석 공동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농협중앙회, 농업농촌 발전 공동 노력키로

- 23일 농축산물 판매 확대농업인 소득 증대 등 위한 업무협약 -

- 전라남도는 23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전남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한 농정시책을 추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전남 귀농어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운영, 도시 청년 및 은퇴자 전남 유치, 전남 농축산물의 홍보공동 마케팅 추진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활성화 노력, 가축 질병 방역활동 전개 및 안전 축산물 공급 공동 대응, 전남행복지역화페의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전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 노력 등이다.
- 또한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촌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 김병원 회장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전남지역 농·축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20여 개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그동안 두 기관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농번기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남 쌀 홍보, 개량물고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10월 17~27일 나주에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에서 연간 1천200억 원 상당의 전남산 농축산물 구매약정도 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을 위한 돼지농장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예방을 위해 8월 28일(수) 하루동안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일제청소·소독 캠페인'을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227호, 7.1일 기준)과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미흡농장(334호, 2019년 1월~6월), 밀집사육단지내 농장 등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 시군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소독방법 : 농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가 보유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고, 방역수칙* 홍보

《방역수칙 홍보사항》

- 1) 농장 출입구 및 물품 반입창고 등(사료·약품 저장소, 냉장고, 공구 정리함 등) 농장 내·외부 정리, 정돈, 청소를 통한 농장 청결 작업 실시
- 2) 농장 내부 돈사별로 철저히 세척·소독을 실시
- 3) 농장 위축돈 조기 도태로 방역 취약구간 사전 제거
- 4) 가축분뇨 처리 시설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철저히 실시
- 5)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으로 축산물 반입과 잔반 자가처리급여를 금지
- 6)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
- 7) 올바른 백신접종 및 관리요령에 따라 모든 돼지에 빠짐없이 접종
- 8) 이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신고(1588-4060, -9060)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번 소독캠페인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을 동원하여 농장의 소독상황과 구제역백신 접종여부 등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농기원, '빅데이터 전문가 1급' 자격증 16명 취득 쾌거

-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자격증 취득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추진단 전원 16명이 빅데이터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 22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추진단원 16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빅데이터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여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이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증이다.
- 도 농기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시설채소 정밀 환경관리로 수량 증대를 위한 농업빅데이터 수집·분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 내·외부의 온·습도, 1주일 작물의 생장 길이 등 약 60개 항목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 또한 스마트농업추진단은 농가별로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수량증대를 위한 환경관리 방안 등을 컨설팅 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 새로운 소득작목 패션프루트 본격 수확

- 백가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 백향과로 불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아열대과수인 패션프루트가 본격적으로 수확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전남지역에도 아열대과수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패션프루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 패션프루트는 새콤달콤 등 백가지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백향과로 불리며, 과즙 100g당 10.4g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 엽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돼 있고 특히 비타민C,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아연 등도 풍부해서 노화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남농기원은 지난 2012년부터 패션프루트 무가온 재배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전남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는데 앞장서 왔다.
- 전남지역 패션프루트 재배면적은 44농가 9.5ha(전국 192농가 39.54ha)에 걸쳐 재배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연구사는 “패션프루트를 사시사철 수확할 수 있는 하우스 관리 및 단경기 출하를 위한 수확 후 저장 기술 개발과 함께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풋굴의 상큼함 그대로 피부에 바르세요”

- 4주 사용, 피부 보습 18% 좋아지고 주름은 10%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주대학교와 임상시험을 통해 풋굴(덜 익은 굴) 추출물의 피부 보습력 향상과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20대~50대 여성 54명에게 풋굴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 시제품을 4주간 사용하게 한 결과, 하루에 2번씩 바른 참가자들은 사용 전보다 보습 상태가 18%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기(3D 피부 촬영장치)로 주름을 측정했더니 눈가는 6.5%, 이마는 10%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시제품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 참가자 모두(100%) 보습·눈가 주름 개선·이마 주름 개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 풋굴 추출물은 다 익은 굴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최대 2.3배 많았다. 항산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최대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각질 세포 대상 연구에서는 1% 풋굴 추출물을 처리했더니 주름과 탄성에 영향을 주는 히알루론산은 40%, 각질 세포 간 단단한 결합으로 피부를 축축하게 하는 필라그린은 18% 증가함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명인’브랜드 가치 활용해 오픈마켓 진출 모색

- 농촌진흥청, 고품질 농산물 수요 반영해 마케팅 지원방안 논의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품질(프리미엄)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오픈마켓(인터넷 열린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공동연수에 참석해 농업기술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업기술명인은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 이날 국내 오픈 마켓 유통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도 참석해 농업기술명인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시장에서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햇배 ‘한아름’엔 달콤한 과즙이 ‘한가득’

- 농촌진흥청, 강원도에서 23일 평가회, 24일 시식 행사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늦더위를 잊게 해 줄 여름 배로 수확 시기가 빠르고 육즙이 풍부한 국산 배 ‘한아름’ 품종을 추천했다.
- 8월 중순에 생산하는 ‘한아름’은 농촌진흥청에서 2001년 개발한 품종이다.
- 열매는 어른 주먹만한 중간 크기(480g)로, 혼자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과즙이 많고 당도도 13브릭스(°Bx)로 높아 달콤하다. 껍질이 얇아 깎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
- ‘제2회 대한민국 우수품종대상(2006)’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우수 품종으로도 인정받았다.
- 품종 출원과 동시에 농가에도 보급했으며, 현재 약 50헥타르(ha)에서 재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한아름’ 품종을 알리기 위해 23일 강원도 양양에서 농가, 중도매인, 산업 관계자들과 현장 평가회를, 24일에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소비자 대상 시식회를 마련한다.
- 시식 행사에는 ‘배 소비자 서포터즈(지원단)’도 참여한다. 서포터즈는 새 품종의 맛과 특성에 매료된 소비자들이 2008년 결성한 모임으로, 현재 277명이 국산 배 홍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나주시, 명품 다도마늘 육성 박차

- 지역 특화작물 육성 일환 ... 다도지역 마늘 재배 농가 경쟁력 강화 -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남평농협 다도지점에서 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마늘’ 재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최근 농작물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특화 작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육성 작물로 다도 마늘을선정해 추진했다.
- 다도지역은 토양의 물 빠짐이 좋고, 산간지역 기후 여건으로 마늘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맛과 향이 좋은 마늘 산지로 꼽힌다.
- 하지만 마늘을 특산물로 생산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배·생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늘 무병종구 조직배양, 종구관리 중요성, 병해충 방지, 영농시기별 재배·관리 방법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 기술을 제공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판매 마케팅을 위한 기술경영교육, 농가별 소득분석 및 평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명품다도마늘 육성에 최선을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나주시



나주시, ‘과수화상병’예방, 농가 실천 이렇게 하세요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원 청결유지, 작업도구 소독 등 행동 요령 숙지 당부 -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최근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질병 유입방지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농가 실천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 시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 피해면적(‘19. 7. 9.기준)은 농가 146개소, 전체면적 98.2ha로 경기·충남·충북·강원 등 지난 2015년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기발생지역 주변으로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다.
-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발병할 경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방제 약제지원’, ‘과수화상병 예찰조사(3차)’, ‘농가신고제운영’ 등 과수화상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은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법으로 청결한 과원관리, 과수원 출입 시, 인력·장비 수시 소독, 건전한 접수·묘목 사용, 질병 발생 시 잔재물 이동금지, 관련 교육 참석 및 정기적인 예찰, 발병 즉시 신고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주시 과수기술팀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방제와 정밀 예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가들은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행동요령을 숙지하여과수화상병이 우리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청년농업인과 함께 담양의 미래농업을 꿈꾸다

- 담양군, 20-40 청년농업인 상생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8월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40대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4-H연합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의 미래농업 생상발전방안에 대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20~40대의 딸기, 마키베리, 낙농, 양봉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청년농업인들을 농업·농촌에 정착하는데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 이날 청년농업인들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영농시설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선배 농업인과의 소통과 영농기술 전수의 어려움, 생산농산물에 대한 개인농가단위 판매 및 홍보의 한계 등을 토로했다.
- 이에 군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청년농 지원정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아울러 유튜브, 담양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작물재배 영농생활, 농촌에서의 육아 등 농업·농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을 공유 홍보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유대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추석 대비 서울 코엑스 명절선물전에서 곡성 멜론 홍보

- 민원해소, 보건안전 개선, 동물복지 실천 1석 3조 거둬 -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9 한가위 명절선물전’에 참가해 지역 대표 소득 작목인 곡성 멜론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 2009년에 시작해 올해 22회째를 맞은 '한가위 명절 선물전'은 명절선물을 기획하는 기업체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는 대규모 행사다.
-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서는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사용해 공동선별한 최고 품질의 곡성멜론을 선보였다. 4일 동안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유통업체 바이어, 한가위 선물을 준비하는 기업들, 개인 소비자들은 곡성멜론과 멜론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2019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 곡성멜론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보여준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져 다가오는 한가위에 많은 가정에서 곡성멜론을 맛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으로 전국적 브랜드화 꿈꾸는 곡성멜론

- 오랜 재배역사, 높은 카로티노이드 함량 등으로 품질특성 인정받을 지 관건 -

- 곡성멜론이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위한 공식 시험대에 올랐다.
-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멜론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 곡성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곡성멜론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와 멜론농가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곡성멜론만의 품질 특성, 생산 유래, 곡성군 지리적 특성과 곡성 멜론의 연관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게 됐다.
- 곡성은 1982년에 처음 하우스 농사를 통해 멜론을 도입했다. 약 40년의 재배 역사를 자랑하며 토란과 함께 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잡았다. 곡성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풍부해 멜론 특유의 풍미(Flavor)가 진하다는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출처 : 곡성군



보성군, 개학 맞은 아이들 싱싱농원에서 딸기잼 만들기체험

- 조성면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성, 유래준)에서는 지난 19일 조성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등 25명과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 이번 행사는 보성싱싱농원(대표 정경모)에서 실시했으며 ‘조성면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무료로 진행됐다. 개학 첫날을 맞은 아이들은 딸기잼과 인절미 만들기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정경모 대표는 “관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여서 더욱 부듯하고, 떡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이 고유의 미풍양속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성 조성면장은 “싱싱농원과의 업무 협약이 이번 행사로 이어져 뜻깊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조성면에 나눔문화 확산의 물꼬가 트여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안정적 농촌 정착위한 귀농 농업창업 지원

- 하반기 농업창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19억 지원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19일 귀농귀촌 심의위원회를 열고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대상자 8명에게 창업자금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 선정심사위원은 귀농 관련 전문가, 대출 기관, 농업인 단체, 귀농귀촌 단체 관계자, 마을이장 등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심사위원들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농지구입·하우스 시설·과원 조성 등 영농기반 확충과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까지, 주택구입과 신축자금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 지역으로 5년 이내에 전입한 귀농인으로 귀농 교육 100시간 등을 이수한 65세 이하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 화순군은 지금까지 100명에게 154억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귀농인의 영농정착과 주거 안정을 도왔다. 2018년 귀농·귀촌 인구는 2154명이다. 이 중 40대 이하가 57%를 차지해 젊은 층에 화순군이 귀농귀촌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소규모 창업농 육성 효과‘톡톡’

- 가공기술 교육 박차, 10월 중 공동 브랜드‘땅끝이랑’제품 출시 예정 -

-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지역 소규모 농가의 가공상품 개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에 지난해 문을 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찹, 잼, 건조, 분말, 과립 등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가공시설을 갖추고, 올해 2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공 기술 교육과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가공 창업 농가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센터의 가공장비를 활용해 해남의 맛을 담은 각종 가공식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 특히 교육 참여 농가 중 농산물 가공창업 과정 수료생 40명으로 결성된 땅끝이랑 협동조합은 5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고, 7월부터는 부추·표고 분말, 무화과잼, 블루베리·아로니아잼 등 시제품 생산에 착수했다.
- 10월경에는‘땅끝이랑’공동브랜드로 해남미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가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군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2개소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 컨설팅을 실시해 가공시설 장비를 개선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농가에서는 9월경 비트잼, 돼지 감자차 등 가공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양파 재배 기계화로 경쟁력 강화 앞장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농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파 기계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양파 기계화’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농번기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상승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무안군은 매년 기계화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 올해 무안군은 군정 역점사업인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을 위해 전년(547ha) 보다 15%가 늘어난 630ha를 목표로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기계정식에 필요한 육묘상자, 종자코팅, 멀칭비닐, 상토 등의 농자재와 및 정식기, 전엽기, 파종기 등의 기계를 지원한다.
- 군은 이번 교육에서 기계 육묘 재배기술과 농가 우수 사례발표, 농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토론회를 통해 농가 상호간 정보 교환과 그동안 양파 기계정식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에서 사례발표를 했던 한 농가는“양파 기계정식의 성패는 육묘에서 판가름 난다며, 관행과 달리 기계묘는 묘판 발아율, 물관리와 비배 관리등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무안군은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정식과정 기계화뿐 아니라 앞으로 본밭 관리 기계화(비료살포, 병해충 방제), 수확작업 기계화, 농작업 간소화(생분해 멀칭비닐)등 산적인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무안군



무안군, 과수화상병 방지 교육 실시

- 무안군(무안군수 김산)은 지난 16일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과수화상병 관내유입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과수화상병은 배나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병이 발생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여 화상병이라고 하며, 병발생시 과원전체를 폐원해야하고 치료방법이 없는 식물검역법상 금지병해충이다.
- 이날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님을 초청하여 화상병 육안진단 및 안전관리, 병발생시 농가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 군 관계자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올 봄 사전 방제약을 공급하고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병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아직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만큼 농가는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화상병 세균이 작업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도구·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한다.”면서
- “나무를 자주 꼼꼼히 살펴보면서 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무안군



함평군,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 운영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지역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 꽃눈분화는 딸기가 생육에 필요한 영양육묘기간 등 조건들이 모두 다 완성돼 꽃눈을 형성하는 것으로, 최적의 딸기 정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 보통 60배 이상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일반적인 재배농가에서는 최적의 딸기 정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꽃눈 분화가 되지 않은 미분화묘를 일찍 심을 경우, 오히려 딸기 수확이 평균 2개월가량 늦춰진다.
- 센터는 이달 초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검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육묘장 중앙부위에서 잎색이 진한 묘 3~5개를 뽑아 센터 기술보급과로 방문하면 된다.
- 센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딸기의 적기 정식만 이뤄진다면 가장 비싼 시기인 12월부터 1월까지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조성한 딸기 육묘장 5개소를 활용하는 등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영광군, 올해 조생종 벼 첫 수확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9일부터 대마면, 염산면 등 벼 재배지에서 조생종 벼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 조생종 벼는 농작업 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노동력 및 농기계 활용이 수월하고 햅쌀의 조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상재해 회피와 마늘, 양파 등 후작물 재배에 용이하다.
- 영광군은 올해 약 150ha 내외의 조생종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대마면에서 극조생종을 10ha 가량 재배하고 있다.
- 올 4월에 하우스 육묘를 시작해 4월말부터 5월 상순에 모내기한 벼가 110일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수확된 벼는 가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대마면 이문형 씨는 “수량이 10a당 630kg으로 수량이 그다지 줄지 않고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매년 지속적으로 재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군 주요 조생종 품종은 조명1호로 9월 상순에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완전 물떼기 후 수분관리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영광군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노지 해변포도 8월 20일경 출하

- 청정한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해변포도’라 불리며 미네랄과 당도가 높아 인기인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가 8월 20일경부터 본격 출하된다.
- ‘해변포도’는 8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불리며 동서양 구분 없이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과일 중 하나이다.
- 완도군에서는 해풍의 농업적 이용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시하였는데 완도 해변포도의 경우 타 지역 대비 기능성 물질(안토시아닌, 칼리 성분)과 당도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해변 포도를 처음 맛 본 한 관광객은 “다른 지역 포도에 비해 당도가 확실히 높고 끝 맛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다.”고 말했다.
- 군은 포도 유기 재배 시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등 고품질의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에서는 앞으로 “해변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완도군



인도네시아, 점차 커져가는 채식시장

- 채식 요리나 제품을 찾는 수요는 많으나 가격이 비싸 중상층을 위한 요리로 인식되어왔고 몇몇 레스토랑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음
- 최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채식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비건(Vegan)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채식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음
- 소셜 미디어를 통해 채식 요리를 판매하는 알렉산더 레이몬 (Alexander Raymon)은 채식주의 요리의 붐이 2009-2010년에 시작됐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채식주의 또는 비건 시장은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다고 말함
- 채식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인식 때문
- 2010년 50여개에 불과하던 채식 식당이 작년 기준 436개로 늘어남
- 인도네시아는 2018년 ‘채식주의자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183개국 중 16위를 차지

- 시사점 -

- 소득수준 향상, 라이프 스타일 변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채식 요리 및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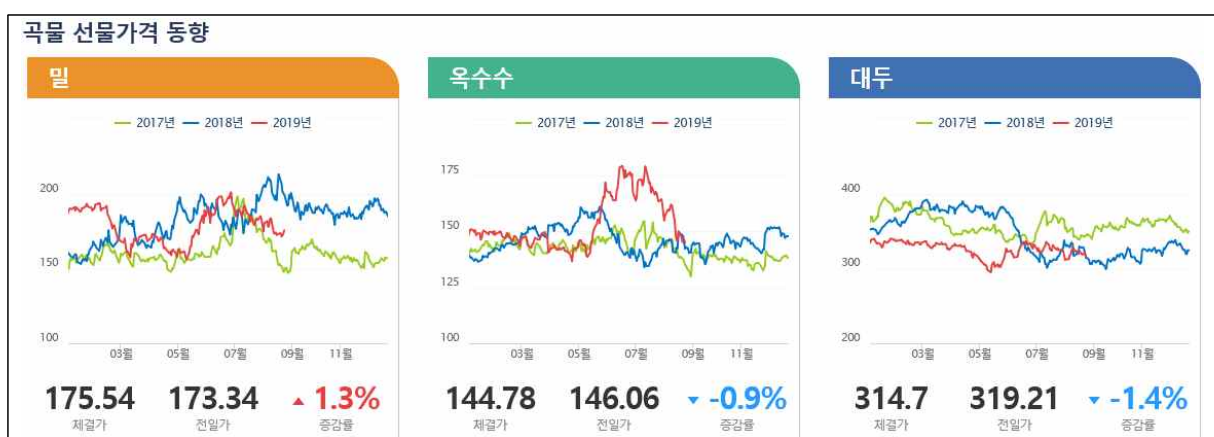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2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미 농무부의 수급보고서 발표에 앞서 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3%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이번 주 12월 WZ9 계약에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기술 매수세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금요일 밀 선물가격 상승하면서 미국 곡물들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졌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9%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 계약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격화에 대한 우려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했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중국이 미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11월 기준 계약인 SX9가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금요일 하락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서는 가격정보, 동향/전망, 식재료아카이브, 알뜰장보기, 유통실태, 자료실, 고객센터로 분류되어 있으며,
- 가격정보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소매가격, 가격정보 조사요령, 부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도매가격은 품목·기간·부류별로 기간 > 지역 > 부류 > 품목 > 품종 > 등급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소매가격은 품목·기간·부류·시장·친환경농산물별로 기간 > 부류 > 품목 > 품종 > 등급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정보는 주요 농산물 일일 도매가격, 산지가격, 경락가격, 가격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AMI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가격정보', '동향/전망', '식재료 아카이브', '알뜰장보기', '유통실태', '자료실', and '고객센터'. Below this, the main heading is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Underneath, there are two main sections: '도매 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and '소매 가격'. Each section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for '품목' (Product), '단위' (Unit), '가격(03.05)' (Price), '동향률' (Trend Rate), '전일' (Yesterday), '1개월전' (1 Month Ago), and '1년전' (1 Year Ago). The '도매 가격' table lists products like '참외/양반계', '참외/양반계', '참외/양반계', '참외/양반계', and '참외/양반계'. The '소매 가격' table lists products like '참외/양반계', '참외/양반계', '참외/양반계', '참외/양반계', and '참외/양반계'. Below the tables, there are sections for '주간 알뜰장보기' (Weekly Smart Shopping) and '식재료 아카이브' (Food Ingredient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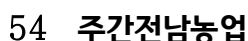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농식품소비트렌드, 경영기술,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관측정보, 농식품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축산물가격은 실시간가격, 기관조사가격, 해외농산물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시간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도매시장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기관조사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가락시장, 강서시장, 품목별가격, 지역별가격, 유통센터별가격 중 기준일시점으로 부류 > 품목 > 품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해외농산물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부류 > 품목 > 품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부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버섯, 관측속보별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가격동향, 출하전망, 가격전망, 정식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은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국제 곡물, 버섯으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최근 3개월 간의 거래가격 및 반입량 추세(가락도매시장)를 그래프와 가락동 도매시장 최근 10일 간 도매가격 및 반입량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 도매가격동향은 일자를 선택하여 품목별로 가격과 등락률(%)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아빠의 깨끗한 비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스티브 잡스, 슈바이처, 한비아
친구들이 말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발표했던 하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2달 전〉



우와 정미야,
가방 새로
샀어? 시계도
신상이네?



아빠가 독일 베를린
출장 다녀오시면서
선물을
사오셨더라고요~
안그래도 되는데



휴..



하늬와 장미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다
그러나 둘이 살던 동네는 정반대였고
둘의 부모님 성품 또한 정반대였다



주간 249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8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